

KIA, 오늘부터 한화와 안방 2연전

“4강행 마운드 우리가 나선다”

‘평균 연령 19.5세, 평균 프로경력 1년 2개월’

국내 프로야구 8개 구단 가운데 최연소 ‘중간 계투조’인 한기주(19)-윤석민(20·이상 KIA)이 팀 4강행의 든든한 지원병으로 나선다.

KIA는 27일부터 광주서 열리는 한화와의 2연전에 ‘원투펀치’ 김진우와 그레이를 연속 투입, 연습 사냥에 나선다. 이번 2연전서 연습경기엔 성공할 경우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9부능선을 넘게 된다.

“선발, 7이닝 막아달라”

하지만 ‘특급 마운드’가 마무리 막강하다 해도 뒷문이 느슨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일.

다행히 KIA는 선발보다 더 믿을직한 ‘특급 계투조’가 버티고 있다.

최근 올 시즌 최고 구속인 155km를 기록한 미들맨 한기주와 150km를 넘나드는 광속구와 제구력이 뛰어난 마무리 윤석민이 그 주인공.

한기주는 9월 한달동안 12경기서 29.2이닝을 던져 평균 자책점 1.21을 기록할 정도로 완벽투를 구사하고 있다.

윤석민도 9월들어 9경기서 10.1이닝동안 3실점만 내주며 뒷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선발



27일 김진우 28일 그레이

미들맨·마무리



한기주 윤석민

특히 ‘한-윤’ 계투조는 최근 5경기서 무실점 호투하는 등 시즌 막판들어 더욱 힘을 내고 있다.

이들의 활약은 기나긴 페넌트레이스로

기력이 떨어진 선발투수들에겐 보약이나 다름없다.

김진우는 최근 2차례 선발 등판에서 5회 이상을 던지지 못했고, 주특기인 직구도 140km대 중반을 오가는 등 불안한 모습이다. 그레이싱어도 올해 188이닝을 소화하며 많이 지쳐있는 상태.

따라서 KIA는 선발 김진우가 27일 한화전서 5회까지만 버텨준다면 ‘한-윤’ 조를 투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김진우가 예상외로 7~8이닝을 소화해 준다면 KIA로선 말 그대로 ‘땡큐’다.

‘한-윤’ 최근 5경기 무실점

‘한-윤’ 조에서 한 명을 아낀 다음, 28일 그레이 선발때 기용하면 2연승의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김진우-그레이’, ‘한기주-신용운-윤석민’으로 적절히 배합하는 마운드 운용은 타 팀에선 ‘공포’ 일 만큼 완벽하기 때문.

‘원투펀치’ 김진우와 그레이가 상대의 기를 꺾어놓으면, ‘미들맨’ 한기주가 달려들어 완전 제압하고 ‘마무리’ 윤석민이 확인사살까지 하는 KIA 마운드는 ‘승리공식’이나 다름없다.

여기에 부활한 ‘통 미들맨’ 신용운까지 힘을 보탠다면 KIA의 4강행은 그리 먼 얘기만은 아닐 듯하다.

여기에 부활한 ‘통 미들맨’ 신용운까지 힘을 보탠다면 KIA의 4강행은 그리 먼 얘기만은 아닐 듯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현수, 쇼트트랙 국가대표 탈락 위기?

26일 오후 목동실내아이스링크에서 열린 2006~2007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1500m 결승에서 안현수 선수(3번째)가 역주하고 있다. 안현수는 결승에서 4위로 통과, 선발이 불투명하게 됐다. 1위는 김현곤. /연합뉴스

전덕형 “100m 한국新 도전”

완도 수산고 정승현 급

전국 아마복싱 64kg급 고등부

대구국제육상 출전 각오

“9초대 선수와는 처음 맞붙는다”

국내 육상 단거리 1인자 전덕형(22·충남대·사진)이 28일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6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 27년째 깨지지 않고 있는 남자 100m 한국기록 사냥에 나선다.

100m 한국기록은 1979년 서말구(당시 동아·현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멕시코 유네버시아드에서 세운 10초34. 여자 100m 세계기록이 10초49(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인 점을 감안하면 그리 대단한 기록도 아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술한 스프린터들이 이 기록에 도전했으나 난공불락이었다. 이미 은퇴한 강태석이 1998년 베트남 오픈육상대회에서 10초30을 찍었지만 수동 계측이라 기록을 공인받지 못했고, 진신국(36·은퇴)이 1993년 제1회 베이징 동아시아대회에서 10초23을 기록했지만 풍속 초과였다.

그 외에는 아무도 서말구의 기록에 ‘범접’하지 못했다.

전덕형은 지난 8월 일본 도야마 육상대회에서 10초39를 전관판에 찍었다. 뒷바람이 기준 풍속(초속 2m)을 초과했지만 한국기록에 100분의 5초 차로 따라붙는 기록을 냈다.

침체에 빠진 한국 육상이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기대주가 바로 전덕형이다.

특히 전덕형은 대구국제육상대회에서 생애 처음 9초대 선수와 동반 레이스를 펼친다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9초94의 개인 최고기록을 갖고 있고 올해 모스크바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레너드 스톱(미국)과 영연방대회 2위이자 9초84의 개인기록을 지닌 울루소지 파수바(나이지리아)가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완도 수산고 정승현이 제38회 전국아마추어복싱선수권대회 고등부 64kg급에서 우승했다.

정승현은 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KBS 공개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고등부 64kg급 결승에서 단타전 끝에 경민규(서울체고)에게 19-15로 판정승을 거두고 체급 정상에 오르는 동시에 최우수선수(MVP)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또 박정용(전남체고)은 45kg급에서 한수민(함양공고)을 2회 RSC로 꺾고 1위를 차지했으며 함상훈(대구체고)은 91kg급 결승에서 장재혁(군산중양고)을 상대로 1회 RET승을 따냈다. /최재호기자 lion@

한국 캐나다와 4강전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

한국이 제22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서 27일(이하 한국시간) 캐나다와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캐나다는 26일 쿠바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파나마를 5-3으로 물리치고 마지막 4강행 티켓을 얻었다.

이에 따라 전날 대만과 8강전에서 김광현(안산공고)의 완봉 역투를 앞세워 1-0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에 선착한 한국은 캐나다와 준결승을 벌이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 결승 2루타...사흘 연속 타점

서재응 4승 실패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오랜만에 장타를 날리며 사흘 연속 타점을 올리는 활약을 펼쳤다.

추신수는 26일(이하 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장, 2타점을 올렸고 2루수 1안타와 볼넷 2개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1-1로 맞선 1회말 1사 1.2루에서 존 갈랜드와 8구, 2-3 풀카운트까지 접전을 벌이다 그리몬드 오른쪽 깊숙이 떨어지는 결승 2루타로 마르티네스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6일 토론토 전 이후 20일만에 나온 2루타. 추신수는 조 임플렛의 안타로 홈에 들어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3회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내야땅볼로 물러났고, 5회에는 5-1로 앞선 1사 3루에서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추가했다. 시즌 22타점째.

6회에는 10-1로 크게 앞선 1사 2.3루에서 볼넷을 골랐다. 후속타자 케이지 블레이크의 만루홈런으로 홈을 다시 밟았다.

8회 주자 없는 2사에서 볼넷을 얻었다. 추신수는 4일 연속 안타를 때렸고 타율은 0.280까지 올랐다.

클리블랜드는 이날 14-1로 대승했다. 한편 추신수는 오는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국 땅을 밟을 예정이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추신수의 에이전트 이충무씨는 26일 “추신수가 다음 달 10일 오후 4시15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족과 함께 입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서재응(29·탬파베이 데블레이스)이 홈런 2개를 맞는 등 극심한 난조에 빠져 시즌 4승 도전에 실패했다.

서재응은 26일(이하 한국시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스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해 1.2이닝 동안 홈런 2개 등 안타 7개와 볼넷 2개로 8점을 내줘 패전투수가 됐다.

시즌 3승1패를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은 4.85에서 5.27로 치솟았다. 1회에만 46개를 포함해 투구수는 62개였다.

서재응은 지난 7월30일 양키스전에서 시즌 3승을 수확한 뒤 타선 침묵 등으로 9경기 등판에서 승리없이 2패를 떠안았다.

탬파베이는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홈런 4개 등 안타 20개를 두들겨 맞고 1-16으로 패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wangshangmu Night' (광상무나이트) featuring Kim Beom-tong (김범룡) and a 100% discount on adult nights. Text includes '매일밤 8시부터 쏘! 쏘! 쏘! 애들은가라!!' and '부킹천국 10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ongbu Real Estate Consulting' (동부부동산컨설팅(주)).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locations like Daegu and Gwangju, with prices and features.